

고분자응집제 수요 연 10% 신장

국내 가동률 50%선 불과 ... SNF·Calgon제품 등 2600톤 수입

국내 PAA(Polyacryl Amide)계 고분자응집제 수요는 연간 1만톤 규모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양화학·송원산업·코오롱 등 국내공급 3사의 가동률은 91년 기준 50%선에 불과하고, 원가상승 및 제반경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오히려 하락, 각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화학(대표 신창덕)은 3500톤의 생산능력중 지난해 관납 600톤을 포함 2400톤을 생산해 70%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79년 생산을 시작한 송원산업(대표 박경재)은 2000톤 생산능력중 900여톤을 생산해 50%에도 못미치는 가동률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의 三菱化成 기술제휴로 91년 6월 생산을 시작한 코오롱(대표 하기주)은 1500톤중 500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유기고분자응집제 시장현황

(단위:톤)

생 산 업 체	생산능력	생산량	수 입 업 체	수입국	생산량
①국내공급			②수 입		
이 양 화 학	2,500	2,000	유천ENG	Allied Colloids(영)	902
송 원 산 업	2,000	900	Unico	SNF(폴)	1,158
코 오 롱	1,500	500	코 칸	Calgon(미)	420
유 니 코	4,500	3,600	합 계		2,608

주) ① 이양·송원·코오롱 분말기준, 유니코 액상기준 ② 분말·액상포함

반면, 수입품은 프랑스의 SNF제품과 영국의 Allied Colloids, 미국의 Calgon제품이 연간 1000여톤씩 수입돼 국내시장의 25%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PAA가격은 국산 Anion계가 kg당 3000원, Cation계가 4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kg당 100원 정도가 인하된 것으로, 코오롱의 신규참여와 이양화학과 송원산업의 생산물량 확대, 수입품의 가격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매년 공식적으로 600톤씩 납품되는 조달청 관납가격은 지난해와 올해 동결된 상태로 전량 Cation 계인데 kg당 2893원 수준이었다.

조달청 관납은 국내공급업체들의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90년, 91년은 이양화학이 각각 600톤을 공급했고, 올해는 송원산업에 낙찰됐다.

관납가격은 시중판매가격보다 워낙 싼 가격이어서, 올해도 수차례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분자응집제 수요는 사회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으로 연간 1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코오롱은 오는 94년 하반기에 연간 1500톤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솔화학은 삼성기술연구소와 자사연구팀이 공동개발, 100억원을 투자, 연간 4500톤 규모의 Emulsion 타입 고분자응집제 생산을 목표로 지난 9월 전주에 공장건설을 시작, 내년 5월 준공예정이다.

Emulsion 타입은 현재 국내에서 Unico가 연간 45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동화가 가능하고 폐수성상에 맞는 응집제 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